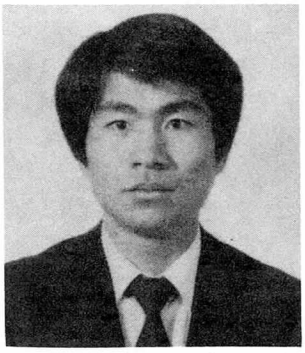
● 호텔안전관리자의 견해

관리적 결함이 항상 말썽



김 병 욱
〈(주)호텔신라 안전관리자〉

1. 서 설

그칠줄 모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호텔화재 !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이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호텔화재는 매번 참사가 날때마다 온국민들은 안전대책이 시급히 세워져야 한다고 온통 들끓고 야단들이었으며, 관계부서와 관광업계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약속이나 한듯이 법석을 떨며 철저한 개선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을 다짐했지만 그후에도 매번 호텔화재는 발생했으며 또한 앞으로 또 발생할지도 모를 것이다.

나날이 한국의 위치가 세계 곳곳에 확대되어 외국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 이들을 맞이하는 호텔에서 당장 눈앞의 이익때문에 한발자국 앞으로 나가면서 두발자국 뒤로가는 우를 범하는, 즉 몇원을 벌려다 수백만원을잃는 사태를 보고 외국관광객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까?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호텔화재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며 진단해 본다.

2. 70년도 이후 주요호텔화재 공통점

1) 호텔등급이 2,3급의 중급호텔로서 경영구조의 취약
2) 동일유형의 주기적 반복
3) 인명및 재산피해 대형화
4) 경영주 소방설비 투자기피및 관리감독자의 관심부족
5) 건축및 소방시설 결함및 관리부실
6) 관계당국 소방점검시 사전지적 미흡
7) 전문 방화관리자 미선임
8) 발화점이 구조가 취약하고 고객출입이 빈번한 지하층이나 1, 2층
9) 종업원 소방교육및 훈련미실시

3. 호텔건물의 특성

1) 구조적 특성

가. 호텔은 종합서비스업으로 크게 객실·식음·연회·체육및 오락과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지하층및 1, 2층의 구조가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객실층과는 달리 용도별로 시설이 복잡하고 화려.

나. 지하층및 1, 2층은 대부분 건물주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직영업체가 아닌 임대업체로서 입주자들의 효율적인 통제나 관리가 곤란.

다. 화재발생시 복잡한 시설구조로 소화활동장애와 급격한 연소확대 증가.

2) 관리적 특성

가. 호텔은 개방된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장소로서 출입고객 대부분이 시설구조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상태에서 이용.

나. 좁은 면적에 비하여 많은 인원의 수용으로 화재시

많은 인원의 동시대피와 통제곤란.

다. 시설물이 화려한 반면 내구기간의 단기로 수시 개보수로 인한 방화관리상 취약.(허가할 당시 영업에 직결되는 것을 먼저 허가해놓고 방화관계에 있어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점차 영업해 가면서 보완한다는 인식과 최초 건축이 설상 잘 되어있더라도 영업도중 필요에 의해 개보수 할때는 설계당시 사전 방화관리자에게 자문과 충분한 의견을 들어 개보수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용도와 외적여건만 고려, 자문이나 의견을 거치지도 않고 직접 개보수하여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라. 가연성물질(카텐 · 카페트 · 장식용물품 · 칸막이 · 의자등)취급으로 연소확대 위험가중.

마. 가연재인 카텐 · 카페트 · 벽지등의 잦은 교체나 세탁등을 빙자한 방염회피.

바. 24시간 영업에 따른 시설정비 점검곤란.

사. 화재시 종업원들의 충분한 외국어에 대한 의사소통 부족으로 외국고객의 신속한 통보및 대피유도 곤란.

4. 호텔방화관리

1) 시설운영

근래 신축하는 대형호텔 건물들은 보편적으로 소방시설이 잘 되어있고 또한 전문기능인들로 편성된 소방시설물들을 관리 유지하는 방재실이 별도로 설치 ·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신축한지 오래된 중소규모의 호텔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같다.

경영구조의 취약성과 재정능력의 빈약으로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소방관계 투자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설상 오픈 당시 소방시설물을 잘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보이기 위한 전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 기능의 100%발휘를 위하여 전문인들을 채용, 관리전담케 하여야 하나 대부분 일반기계 시설이나 공무담당자들로 하여금 2중 3중 겸직케하여 부실관리의 조장과 담당자 또한 직제가 낮아서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문제보완을 위한 의욕적인 업무추진을 하려해도 위로부터 직접영업에 직결되지 않는다고 지연시키거나 의사전달조차 안되는 사례가 많다.

2) 소방훈련 및 연습

가. 호텔은 다른 일반건물과는 달리 외국인등 대외고객을 모시는 특수한 관계로 조그만 화재라 할지라도 화재와 더불어 반드시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실질적인 상황에 맞게 훈련및 연습을 반복실시하여 계획의 적합성을 세밀히 검토하고 연습을 통하여 발견된 결함등 실제 발생될지도 모를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항들을 수시로 추가하여 보다 현실상황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는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단순한 이유하나로 적극적으로 고객의 양해를 얻어 외국에서와 같이 고객과 종업원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에 대한 신뢰확보에 노력해보지도 않고 기피하는 사업주나 관리자들의 퇴보적인 사고방식이 더욱더 문제인 것같다.

실례로서 소화기훈련하나 제대로 할 수없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영업장소로 개조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호텔에서의 가장 중요한 안전이 제 2 차적인 것으로 취급된다면 안전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나. 외국호텔에서와 같이 전문담당부서에 의한 교육훈련과 항시 고객안전을 영업의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풍토조성이 안된 우리의 현실로서는 비상시 소방시설물에 대한 사용요령과 응급조치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이나 행동을 취하지 못하면서 훈련이나 교육을 한다하면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빠지려고 하며 실지 화재가 발생하면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의식은 전혀없이 자신혼자만 대피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3) 종업원의 방화의식 수준

가. 일반적으로 호텔에 투숙하는 고객은 심리적으로 개방된 기분에 사로잡혀 있기때문에 주의나 경계심이 해이해지기 쉽고 흡연, 음주 또는 유희행위등 부적절한 상태에서 화기를 사용하여 그 뒷처리가 소홀하여 특히 흡연을 하면 약간 의 최면효과가 있기때문에 담배를 취침전에 즐겨피우거나 또는 고객들이 고객위주의 편리한 생각과 활동으로 비상시에 대비한 준비나 호텔건물구조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기때문에 화재발생시에대비한 안내나 대피계획을 사전에 염두에두고 항시 주의를게을리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대부분 종업원들이 소방활동을 전문담당자만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익히려 하지도 않고 단순한 생각과 단순한 서비스로 일관.

나. 객실내 고객에게 건물구조의 특징 · 대피방법 · 피난기구 설치위치 · 소방기구 안내서등을 고객이 잘볼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 고객스스로 안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식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대부분 미관상 나쁘다는 핑계와 인식부족으로 외면.

4) 관리기능

호텔내 방화관리업무 종사자중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업무를 통해 능력을 인정받으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영업과 직결되는 타부서로 곧 회사차원에서 전배시키거나 또는 자신스스로 방화관리업무 실태와 구조적 결함등 문제점을 알고는 승진과 일하기 쉽고 빨리 발전할 수 있는 타부서로 옮겨가는 경향이 많다.

5. 법률의 양면성 및 행정기능

1) 법률적용

관광법에서는 호텔시설에 대한 가연성 물질인 카페트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법에서는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내장재 불연화 규정은 있어도 기존 시판중인 많은 종류의 불연제품에 대한 검정승인품목은 없거나 인정을 해주지 않는 모순.

2) 점검

가. 소방안전 진단시 대부분의 호텔들이 기본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그 기능상의 결함으로 화재시 작동이 되었던 호텔이 별로 없었던 것을 보더라도 점검시 외관점검보다 기능점검을 통한 대상업소 단 1 개라도 철저하고 완벽한 서비스 미흡.

나. 점검시 지적된 내용을 오랜 노력끝에 그에 맞게 해놓으면 법률의 변동으로 또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법률이 잘못되어 보완되어진다 하더라도 자주 개정되는 법률 또는 시행령을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믿고 막대한 돈을 들여 시설을 제대로 적용시킬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자주 바뀌는 법률도 재고 되어야 하겠다.

3) 대상업소관리

소방검사시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일정기간 유예를 거쳐 그 이후에도 계속 시정이 안되면 사전에 그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한 신속한 조치로써 전국민에 파급시켜 계속 사회적 동요와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나 대부분 사후약방문식의 대형화재 발발시만 잠깐 반짝했다가 잠잠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4) 방화관리제도

가. 방화관리업무를 유관업무 종사자가 겸직하는 사례 증가.

나. 방화관리자 수요에 따른 배출인원 부족.

5) 홍보및 지도

점검이나 지도교육 방문시 단순한 소화기교육 위주보다 폭넓은 소방관계 자료를 소재로한 교육과 훈련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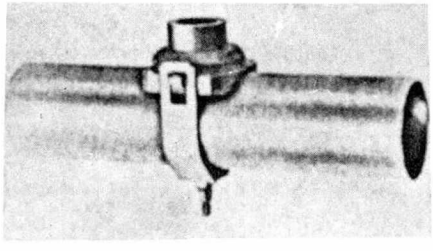
6.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에 관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자신을 사고로 부터 보호하려는 점에 대하여는 거의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또한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게 취하려는 사람도 지극히 드물다.

앞의 내용을 통하여 알수있듯이 근본적인 문제가 기술적 어려움보다 관리적 결함에 기인한 것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재해는 각종 불안전한 상태와 인식속에 한사람의 부주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엄연한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닥쳐오지 않는 현실속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사전예방만이 최선의 길이라는 평범한 진리속에 나한사람 한사람의 올바른 사고방식과 심리적 건전성이 행동으로 옮겨질때 반드시 호텔화재는 근절될 것으로 믿는다.

신제품 소개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간이결합장치

스프링클러 배관과 살수헤드, 그리고 계기(計器) 및 분사헤드의 접속구등을 연결하기 위한 간이다분기(多分技)결합장치가 미국 펜실바니아주 노스타운 소재 '얼라이드 파이핑 프로덕트' (Allied Piping Products)사에서 개발되어 제품이 실용화단계에 들어섰다.

연결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관 직경의 크기는 1 1/4인치에서 2 1/2인치이며 스케듈 번호 10-40스틸배관에 적합하다는것. 이 장치는 12.3kg/㎠ 압력까지에 견디는 UL의 등록품이고 FM의 승인품이다. 부품은 1/2인치에서 1인치까지 이용할 수 있다. (FIRE JOURNAL지 83. 7 호에서)